데스크 시각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해법은 없나

김 일 환
여론매체부장·편집부국장

두 달여 전 저널리즘 연수차 미국 뉴욕 JFK 공항에 내린 필자는 한순간 혼돈에 빠졌다. 분명히 데이터 로밍을 해왔는데,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3G 인터넷은 물론 와이파이 또한 터지지 않아 당황하게 된 것이다.

"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이 이모양이라니…" 푸념하며, 통신강국 대한민국을 깨닫는 그 순간 필자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점차 불안증세로 바뀌고 급기야는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스마트폰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고, 속도가 더디기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무선 인터넷신호를 잡기 위해 코미디에서나 볼 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동으로 들었다 서로 들었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필자는 점차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 이후 미국에서의 일주일은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 없었다. 쏟아지는 정보의 스트레스도 없었고, 연결이 끊어져 고독하다고 느끼기보다는 홀가분함에 자유로움을 만끽하기까지 했다.

귀국 후 아는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했더니 그 의사 왈 필자에게 "스마트폰 중독증세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듣고보니 그도 그럴 것이 일상 속에서도 깜박 잊고,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나오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자주 있었다.

그런데 이런 증세는 비단 필자만이 겪는 것은 아닌 듯하다. 당장 버스나 지하철만 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침묵 속에서 자기만의 스마트폰 세상에 빠져 있는 듯한 풍경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스마트폰 중독 자각 힘들어

사실 스마트폰은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이기(利機)인데 정작 소통은 사라지고, 철저히 홀로 고립시키고, 급기야는 사람의 마음마저 병들게 하고 있으니 이런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편리한 문명의 이기 뒤에는 심각한 그늘이 있다. 점차 폭증하는 통신비도 문제지만 정작 큰 문제는 스마트폰 폐인으로 지칭되는 심각한 모바일 중독현상이다. 이 현상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커 나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심각하다. 학생들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말로 하기보다는 '톡'으로 하는 게 편하다고 한다. 스마트폰 알람에 잠을 깨고, SNS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쉬는 시간에도, 밥 먹을 때도 오로지 스마트폰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지역 초등학교 4년·중학교 1년·고등학교 1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4년(8392명)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위험군(0.8%)과 주의군(4.3%)에 포함된 학생이 5.1%(429명)였다고 한다. 중학교 1년(1만7521명)은 위험·주의군이 22.6%(3955명), 고등학교 1년(1만8916명)은 24.9%(4712명)로 이용자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중학생 10.2%, 고등학생 11.7%)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며,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는 위험군과 주의군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충격적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을 어느정도 통제 가능한 어른들은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다르다. 그 폐해로 인한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

그 심각성을 들여다보면 스마트폰을 계속 내려다보기 때문에 목뼈가 휘는 거북목증후군, 손목은 고정시킨 채 손가락으로만 패드를 두드릴 때 생기는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일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두엽 손상까지 불러온다는, 믿고 싶지 않은 보고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스마트폰에 집착하면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이나 지적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는 디지털 치매 현상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상담전문인력 대폭 늘려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나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문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현상을 막기 위해서 초·중학생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문제 때문에 휴대전화 금지는 어렵겠지만 스마트폰 노출시간이나 빈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급하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자각하고, 해결하려면 전문인력의 상담이 급선무다.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대폭 늘려 학교에 파견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가정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단속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풀어줄지 고민해 봐야 한다. 부모도 매를 들기 전에 오늘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kih8@kwangju.co.kr

은펜칼럼

금남로에서 광주다움을 만드는 법

박 홍 근
건축사·전남대 겸임교수

사회와 건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 어떤 장소에 살며 어떤 건축과 도시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변한다.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다시 인간을 만든다'란 말이 있다. 그만큼 도시 환경과 건축은 우리네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시마다 그들만의 분위기가 있다. 경쟁력 있는 도시 일수록 그 곳에서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무엇'하면 바로 그 도시와 연관되는 바로 그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만들어진 유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에 주목을 받을 커다란 이벤트를 일으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뭐가 됐든 사람의 마음과 뇌에 각인되어 오래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도시정체성이라고도 말하고, '그 도시답다'라고도 말한다. 도시의 상징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도시에서 '시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세월의 '흔적'과 '이야기'를 간직하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도시만의 정체성으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다.

빛고을 광주에서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옛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와 충장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건축물과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골목들이다. 광주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역사의 기억과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이다. 여긴 '광주다움'의 현주소나 마찬가지다. 뉴스에 의하면 이 일대를 민주평화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상당부분 진행된 듯하다. 성공한 사업의 대부분은 행정과 주민이 공동의 좋은 비전을 가진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며, 좋은 실천 방법의 선택과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너무 단기간에 일부 의견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 보면서 몇 가지 진행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행정은 큰 틀의 방향만을 제시하자. 행정 책임자나 실무 책임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에 가까운 의견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사업의 필요성 발굴과 예산 확보만으로도 충분히 행정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둘째, 구체적인 해법은 검증된 전문가에게 맡기자.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전문가 그 이상의 수준이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할 사람은 이미 성공으로 검증된 전문가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누가 하느냐와 지속적으로 일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서두르지 말자.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만은 정하지 말자. 사전조사와 합당한 사람의 선정, 다양한 의견의 청취와 이를 토대로 한 좋은 결과물을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하나 현장에서 만드는 데는 작품을 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료 후도 생각하자. 관 발주 사업들의 상당수가 사업완료 후의 대책이 없다. 사후관리와 운영 프로그램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시설물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의 최종 완성은 이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지관리의 지속성이 필요한 이유다. 구조물이 마무리 된 것과 작품이 완성된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자.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문화로 여름나기, 무등산 여름축제

김 도 일
조선대 교양학부 객원교수·문화평론가

여름 날 송강 정철이 멱을 감았다는 용소에서 선비들이 둘러 앉아 복달임 음식을 먹고 시회를 하며 맑은 물에 탁족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마치, 조선시대에 시간여행을 와서 머물고 있거나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또한 야외 천막 아래서 먹는 닭죽과 막걸리 한 사발은 어찌나 맛있는지 피와 살로 가는 행복감이 느껴진다.

지난 초복 날, 무등산자락 충효동과 환벽당 주변에서 펼쳐진 광주문화재단의 2013 광주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 "무등산 여름축제"와 '성산계류탁열도' 재연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산계류탁열도'는 김성원의 '서하당유고'와 정암수의 '창랑집'에 전해오는 그림이다. 16세기 후반 혼돈의 정치상황 속에서 이재를 좇는 대신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등을 중심으로 학문과 수양에 힘쓰면서 시단을 형성했던 김성원, 김부륜, 양자정 등 선비 11명이 복날 더위를 씻으며 시회를 즐기는 풍경을 담고 있다. 일종의 선비들의 여름나기 풍속이다.

사실 전라도 지역에서 '선비문화'란 말은 낯설다. 우리 지역의 선비문화에 대한 통념은 고산 윤선도, 다산 정약용, 송강 정철 등으로 대변되는 유배문화=선비문화 라고 인식하는 일상적인 상투성에 빠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양반문화와 민중문화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반응에 젖어있는 풍토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름나기 재현행사는 낯설기도 하지만 새롭기도 하다.

무더운 여름날 어찌 선비들만 탁족과 탁열을 하였겠는가. 즉, 탁열과 탁족은 무릇 선비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거 우리 조상 모두의 여름나기를 위한 일종의 보편적 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연행사가 지난 2011년 10월, 2012년 7월에 이어 올해 3회째를 맞았다고 한다. 초기의 단순 복원과 재현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행사 주체로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부분이다. 문화의 발굴과 보존 · 관리 위주의 논리와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를 자원화하고 향유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이자 전통문화를 더욱 살찌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등산 여름축제는 '성산계류탁열도'를 모티브로 하여 전통문화의 발굴 · 복원 · 활용이라는 선순환구조도 있지만, 문화관광 상품개발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축제화는 전통문화와 현대의 결합을 통해 융합을 가로지르는 놀음판이며, 여름 더위를 문화적으로 향유하려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욱 발전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다.

첫째, 공간의 문제이다. 공간은 과거를 역사로 전환시키는 '기억의 장(場)'으로, 공간은 축제를 규정하는 요소이다. 이번 행사는 환벽당과 충효동 마을 일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이 일대는 김덕령장군 유적지, 광주호 호수생태원, 천연기념물 왕버들나무, 가사문학관과 성산계류를 중심으로 소쇄원과 누정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을 전통문화의 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으로, 더운 여름날 전통문화와 자연과 인간이 숨 쉬며 즐거운 여름나기 문화축제 공간으로 확장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콘텐츠의 다양한 개발이다. 타 지역의 선비문화축제를 모방하기보다는,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공간성에 입각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가령 '성산계류탁열도'의 재연행사를 전문 배우보다는 광역지자체장, 정치인,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시민들과 함께 탁족을 하면서 지역 현안이나 정치와 관련한 담론을 나누는 것도 아이디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외 전통의 다이나믹한 소재화로 시민참여와 소통형 축제로 발전시켜가는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관련단체 그리고 예술인이 결합한 시민주도의 여름문화축제 모델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다. 초기 지자체의 지원과 행정의 지원은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간다면 과거와 현대를 소통하는 차별화된 정신문화 축제이자 새로운 품격의 문화축제를 이루면서 시민화합의 장, 전통문화의 장, 여름나기의 장으로 무등산과 전통문화와 사람이 어울리는 광주만의 독특한 여름나기 판벌임이 될 것으로 본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주암댐 도수터널 붕괴위험 방치할텐가

여수와 순천, 고흥, 여수산단 등 전남 동부권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이용되는 주암 다목적댐의 도수터널이 노후화돼 붕괴위험이 높다고 한다. 두차례 낙반사고 이후 현재까지 19년째 보수공사는커녕 안전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암 도수터널은 순천 주암면 대광리 본댐과 상사면 용계리 조절지댐 간 물이 이송되는 11.5km의 터널로 지난 1991년 준공된 뒤 23년째 가동 중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지난 1991년과 1992년 점검 당시 도수터널 천장에서 돌과 흙이 무너져 떨어지는 낙반사고가 발생하자 세 차례에 걸쳐 땜질식 보수공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수자원공사가 터널·암반·지반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터널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장기간 물과 접촉되는 터널 내부구간에 갈라짐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강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사고 개연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터널 내 물을 빼는 등 수문을 조작할 경우 수압 변화로 터널붕괴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용수공급 중단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보수·보강공사 등 근본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손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설득력이 없다.

도수터널이 붕괴되면 여수·순천 등 72만 명의 생활용수 중단은 물론 여수산단 내 공업용수 공급이 끊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만 하루 24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상 초유의 재난사태가 불가피하다.

수자원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정밀진단에 나서 보강공사를 비롯한 도수터널 복선화 사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수자원공사에만 맡길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넘은 전라도 비하 댓글 좌시 안 된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 공문서 조작 사건이 불거져 파문이 일자 인터넷에서 전라도(광주)를 비하하는 댓글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더욱이 댓글 내용이 막말과 욕설 일색이어서 자칫 지역감정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파문 관련 기사에 전라도를 폄하하는 댓글이 많게는 6000~7000 개씩 붙고 있다고 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댓글 하나하나가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무관한 호남과 5·18 등을 비하하는 빨갱이, 폭동, 홍어 등의 단어를 담은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일부 댓글은 '호남은 범죄집단'이라는 등 호남사람 전체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 또 북한과 연계한 입에 담지못할 매카시즘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들도 목격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오유(오늘의 유머)' 등 일부 극우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전라도 비하 댓글이 고스란히 옮겨온 듯하다. 이와 관련, 광주시 안팎에서는 조직적으로 '음해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벌이는 집단모욕은 범죄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묻지마 범죄식으로 확산되는 지역감정 조장 댓글은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이번 기회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 댓글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극단적인 저질 언어를 동원해 지역을 가르는 이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사법당국은 비하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찾아내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5·18 비하에 대응하고 있는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도 적극 나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대통령의 비자금

동서고금을 통해 정치와 비자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심지어 '천하의 주인'이라는 왕들도 비자금을 굴렸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부터 큰 부자였다. 이성계의 집안은 함경도 지역 토착유지로서 함경도 땅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거느린 노비도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성계 자신도 고려말 공신록에 몇 번이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공을 세워 고려 왕실로부터 엄청난 땅과 노비를 하사받았다.

왕이 된 이성계가 가문의 사유재산과 고려 왕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함께 관리하기 위해 따로 관청을 설치하니 바로 '내수사'다. 왕의 최측근인 내관들이 관리하는 내수사는 왕의 절대권력을 배경 삼아 이자놀이는 물론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와 노비까지 침탈하며 까마득한 부를 쌓아올렸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제23대 왕인 순조 당시 내수사가 관리하던 땅은 1134만120평이었다. 여의도 면적의 무려 14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땅으로, 게다가 이 땅은 면세지였다. 이 땅을 개간해서 나온 수익과 그 수익으로 사채놀이를 해 얻은 이익, 그리고 노비들을 부려서 번 돈까지 합하면 왕의 합법적인 비자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왕들도 양심은 있었는지, 내수사의 돈은 일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아 백성들이 서로 쓰겠다며 줄을 섰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요즘 시각에서 보면 그야말로 왕조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씨 일가가 보유한 동산, 부동산이 모두 비자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 뒤늦게나마 추징할 수 있는 돈이 수천억 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통장 잔고가 29만 원밖에 없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던 전 전 대통령. 몰래 감췄던 것이 드러나는 요즘, '합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조선 왕이 몹시 부러울 것 같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